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쿠바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 11일 간의 쿠바기행

노태구

지난 11월 25일 쿠바혁명의 아버지라 부르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카스트로의 죽음이 대내외적으로 남긴 반향은 컸다. 전 세계 각종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는데, 세계인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예컨대 1958년 쿠바혁명의 성공에 떠밀려 플로리다 등으로 이주한 미국계쿠바인 중 일부는 카스트로의 죽음을 반기는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쿠바의 최고통치자로 재임하는 동안 10명의 미국 대통령에 대항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의 선봉장이었다는 후한 평가를 내린 글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평가는 차치하고, 카스트로가 결은 떠난 지금 쿠바 국민은 어떤 심정일지 궁금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카스트로 서거 3일 뒤인 28일에 쿠바에 입국해 11일간 머물 계획이었고, 그렇기에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이번 여행이 매우 특별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숙박과 요식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데, 이곳 쿠바에는 호스텔이 없는 대신 이와 유사한 개념인 민박집(Casa Particular)이 있다. 쿠바인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미리 정보를 알아봐둔 숙소를 수소문해 찾아갔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의 레스토랑을 방문해 먼저 모히토 한 잔을 주문하려 하니



호세 마르티 기념탑 안에 마련된 카스트로의 추모제단(출처: 필자 제공)

종업원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카스트로의 죽음을 추모하는 기간에는 상점과 음식점에서 주류를 팔지 않고, 길거리나 레스토랑의 음악뿐 아니라 영화상영 등의 문화행사도 중지된다 한다. 카스트로가 타계한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영락없이 한 모금 먹지 않고 여행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에는 아침 일찍 호세 마르티 기념탑을 방문해 나 또한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려 했는데, 아바나와 근교에서 몰린 인파로 이른 시간부터 대단히 붐비는 모습이었다. 2시간가량 현지인 사이에서 줄을 서 기다리면서 취재 온 외신과 인터뷰하는 쿠바인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는 큰 목소리로 카스트로는 ‘서민을 위한 사람’(hombre del pueblo)이었다면서 눈물을 보이는 노인 여성도 눈에 띄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입장한 기념탑은 쿠바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헌화가 입구를 수놓고 있었고, 기념탑 내부에는 카스트로의 사진과 함께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실 유골은 화장하여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호세 마르티 기념탑은 쿠바 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카스트로에 대한 조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혁명광장에서는 니콜라



피델 카스트로 장례식(출처: <http://www.macleans.ca>)

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 외빈의 참석 아래 카스트로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를 낭독하는 등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쿠바인은 하나같이 쿠바 국기를 들고 있었고, 카스트로의 찬시를 낭독할 때에는 주요 구절을 제창하기도 했다. 다음날 카스트로의 유골을 실은 운구행렬은 쿠바혁명의 시발점이었던 산티아고 데 쿠바를 향해 출발했다.

카스트로의 죽음은 어쩌면 쿠바혁명 세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쿠바에는 ‘사회주의 결사 수호’(Socialismo o muerte!), ‘쿠바에서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La Revolución seguirá hacia Cuba!) 등 구시대의 선전문구가 적힌 벽과 선전판이 아직도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정작 여행을 하면서 느낀 쿠바의 실상은 사뭇 달랐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아바나와 바다의 경계를 따라 들어선 말레콘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그곳에서 내 또래의 쿠바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게 혁명과 사회주의는 요원한 이야기 같아 보였고, 심지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한 아이의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쿠바에 대한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쿠바의 대표적인 시골마을 중 하나인 비날레스를 여행했을 때 현지

가이드들이 미국의 유명 도시 이름과 심지어는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스스럼없이 입고 모습을 보니 쿠바인에게 반미주의는 이미 낯선 단어인 것 같았다. 조그만 비날레스 시내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이미 뽁뽁이 입점해 지나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근처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카스트로 애도 기간임에도 럼주 시음을 권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바빴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쿠바가 더 이상 개방되기 이전에 한 번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미 한 발 늦은 느낌이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거세게 불고 있었고, 이에 쿠바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발을 맞추고 있었다. 2008년 피델 카스트로를 대신해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은 라울 카스트로는 줄곧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해오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도해왔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집권 7년차 있었던 대미국 국교 정상화 조치인 셈이다.

내부적으로도 쿠바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일례로 기존에 쿠바 국민은 개인 당 단 한 채의 집만을 소유할 수 있었다. 또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집을 맞바꿀 사람을 찾아 교환의 형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완화되어 지금은 이미 기초적 형태의 부동산 시장이 들어섰고, 실제 아바나를 거닐다보면 건물에서 ‘집을 팝니다’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늘어가는 관광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식업의 인허가 조건도 대폭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착취의 관계로 보아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기존의 규제도 완화되어 현재는 다섯 명까지 고용해도 별도 세금 없이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제경제와 자국 내 사회주의경제의 충돌을 우려해 외국인과 자국인의 화폐를 분리하려 했던 기존의 이중화폐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현재는 대부분의 상점과 숙소 등에서 고정 환율에 따라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환 페소(CUC)와 내국인이 사용하는 페소화(CUP)를 함께 사용하는 추세이다.¹⁾

이렇듯 변화의 바람이 대내외적으로 사방에서 거세게 불어오고 있어

1) 공식 환율에 따르면, 1CUC는 살 때 24CUP, 팔 때 25CUP이다.



‘쿠바인 되기’ 투어 중 현지 가이드 집에서의 점심식사(출처: 필자 제공)

쿠바 정부와 경제학계에서도 이를 위한 일관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심 중이다. 나는 수소문 끝에 아바나대학교 경제학부의 한 교수 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여행프로그램을 신청하였는데 ‘쿠바인 되기’(Being Cuban)라는 테마의 이 투어는 일반 관광객이 알기 힘든 쿠바인의 일상을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사흘간 체험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바나의 대중교통을²⁾ 이용하고 쿠바인만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에도 들어가고, 아바나 근교의 농장을 방문하는 등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정도 언제까지 ‘쿠바인 되기’라는 주제에 부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코펠리아(Coppelia)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 길가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매장이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쪽에 내국인을 위한 별도의 매장이 있는데, 쿠바인에게 5페소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관광객은 몇 배의 돈을 더 내고 먹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국인 전용 매장을 들어갔을 때에도 미리 정보를 알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눈에 띄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외국인이라는 점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2) 쿠바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버스노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택시 등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 코펠리아(출처: <http://www.lahabana.com>)

앞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내국인 매장과 외국인 매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두 가지 화폐 경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 이는 쿠바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 중 하나이다. 쿠바인의 월평균 임금은 25CUC를 겨우 웃도는데, 호세 마르티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편도 택시비가 보통 25CUC에서 35CUC 사이임을 감안하면 쿠바인의 소득수준은 관광산업에 비해 매우 현저하게 낮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 내 지식인 계층이 굳이 공공경제에 종사하지 않고 택시기사, 요식업주 등 민간경제로 이동하면서 내부적인 두뇌유출 현상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암환전상과 암표상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 통제 밖의 지하경제가 성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상정하는 노동 활동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인적 착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쿠바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해왔던 것이지만 사실 오늘날 쿠바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쿠바국민은 임금이 적은 공공경제에서 노동활동을 하면서 자아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경제로 이동하려는 것이기 때

문이다.

한편 쿠바는 1,2,3차 산업이 차례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농업경제의 기반 위에 외부 요인에 의한 서비스업의 수요가 쇠약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도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여겨 매우 중요시했고, 이에 따라 혁명 이후 외국계 회사를 국유화하고 토지 개혁과 함께 집단농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바나에서 차를 타고 삼십분 가량만 나가도 사탕수수, 과실류 등의 농지가 널리 펼쳐져 있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관광업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쿠바는 각종 가전제품을 철저히 외국 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내가 묵던 민박집도 삼성 에어컨, LG 세탁기, MABE 냉장고 등을 쓰고 있었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대부분은 중국에서 도입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녹색 시내버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쿠바에 입국할 때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하물도 따로 부치기 때문에 공항 수하물을 찾는 곳에는 수많은 가전제품이 특수 포장되어 운반되어 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한편 에너지 분야 또한 안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수도인 아바나조차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해가 저문 이른 밤 아바나 도심(Centro Havana)을 걷고 있을 때 정전되어 사람들이 창가로 나와 핸드폰과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몇 번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젊은 세대의 노동의욕 상실도 작지 않은 문제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구마다 사람 수에 따라 수령가능 수량이 달리 적혀있는 파란색 배급카드를 가지고 인근 배급소(bodega)를 방문하면 쌀, 강낭콩, 우유, 비누, 세제, 설탕 등 기초적인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는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25CUC 남짓한 빈국이지만, 일부 학자는 쿠바인의 가난을 가리켜 ‘괜찮은 빈곤’(assisted poverty 또는 worthy poverty)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젊은이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



보데가 내부의 배급 칠판 (왼쪽), 쿠바인들의 배급수첩 (오른쪽) (출처: 필자 제공)

거나 타인과 경쟁할 여지가 적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기초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어 노동에 대한 의지가 매우 적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쿠바에는 600만 명 이상의 노동인구가 있지만 이 가운데 170만 명가량이 아무런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아 비효율적 노동구조가 만연해있다. 또한 세대의 교체로 인해 젊은 세대는 혁명의 정신과 사회주의적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한 집단기억조차 약화되고 있어 실제로 거리에는 별다른 일과 없이 낮에는 도미노 게임을 하고, 밤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또래와 끼리끼리 어울리는 젊은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쿠바인 되기’ 투어의 마지막 날에는 가이드 중 한 명인 오스카의 집에 초대받아 그의 가족과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스카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러시아로 유학을 다녀온 은퇴한 기술공인데, 현재는 자신의 취미를 살려 쿠바 국영방송의 요리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인물이었다. 또한 어렸을 때는 쿠바혁명을 직접 목격한 혁명세대로서 우리에게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 당시 아바나에 입성하던 이야기, 동네에서

자주 보던 헤밍웨이 이야기 등 과거의 쿠바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어쩌면 오스카의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쿠바에 대한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들 오스카는 아바나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열리는 경제학회에 자주 참석해 전세계의 학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선진적인 지식인으로, 아바나대학교에서도 서구식 커리큘럼에 따라 미시경제, 거시경제 등을 함께 가르친다고 한다. 이들 부자는 마치 국제적 고립주의 표방하던 쿠바와 개방과 변화의 움직임에 맞이한 쿠바의 세대교체를 보여주는 듯하다.

쿠바에게 변화란 일방적인 문호의 개방이나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혁명이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쿠바식 개방 모델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은 마냥 쉽지 많은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과거의 사회주의적 고립 정책으로 다시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쿠바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쿠바는 현재 중국의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시장경쟁의 도입을 통해 앞서 언급한 당면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개방 정책에 따른 외부 충격을 관리해 나갈 시도를 하고 있다.

아무튼 11일 간의 여행을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쿠바를 만날 수 있었다. 그 동안 내가 책에서 배운 쿠바는 몇 가지 단어로 요약되고 몇 가지 이미지로 상상되었지만, 실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제되어 있거나 틀에 박힌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피델 카스트로는 떠났지만, 쿠바는 또 다른 의미의 혁명을 앞두고 있다.

노태구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재학